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명희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는, 최근 몇 년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 연구의 학문적 편중성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박사 논문과 전문학술지 논문의 60% 이상이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정치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에 대해 경제적 목적 일변도의 편향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피상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과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프리카 연구 주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종합적인 아프리카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구, 아프리카 연구 현황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한

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60년대 중,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관심은 자생적인 필요에 의해서 태동되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외교적 당위성에 의한 성격이 짙었다. 50-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속 독립하면서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편입되게 되자, 당시의 냉전체제 하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0년대부터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지지표 확산을 목표로 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주로 무상원조로 이루어진 전 방위적 외교 경제 정책이었고, 이러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활발한 아프리카 진출은 자연히 동맹국이었던 북한의 아프리카 진출을 가져왔으며, 남북 대결 체제 하에 있던 대한민국으로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당면과제였다. 국제사회, 특히 국제 연합(UN)에서의 지지의 확보, 더 정확하게는 북한의 활발한 아프리카 외교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자연히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관심으로 이어졌지만, 종합상사 차원의 상징적 진출에 그치게 되고,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관심의 소멸이라는 상황에 의해 담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80년대 후반 리비아 대수로 건설 사업 수주 등 아프리카 경제 진출이라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70년대 중동 건설 특수라는 분위기의 연장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자체가 7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의 외교정책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 학술연구 성과를

-
- 1) 중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동안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하였다. 아프리카 주요국에 도로, 철도, 건물, 스타디움을 무상으로 건설해줌으로서 소위 ‘스타디움 외교 stadium diplomacy’라 불리는 독특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그 당시의 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국의 원조와 경제적 진출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주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국제적으로 냉전의 시기가 종식되자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진출에서 경제적 진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1996년 5월 장쩌민 중국 주석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공식화 했고,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오를 정도로 아프리카 경제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데, 국내 아프리카 관련 석사 논문은 1957년에서 1979년까지 1-2년에 한 편 꼴로 매우 빈약한 편이며, 박사논문이 처음 나온 것도 1984년에 이르러서였다. 1957년 박병국의 『Osiris神話와 Egypt人의 來世觀』이 제출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의 아프리카 관련 논문이라 보기 어렵다. 지역 연구에 관한 보고서 성격의 결과물들은 1959년 외무부가 발간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파견 친선사절 보고』나 1955년 한기련의 「불란서의 고민과 아프리카의 폭동」 등이 있으나²⁾ 이때까지는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의 시작으로 보기는 힘들다. 1962년에야 한기선의 『汎 아프리카主義에 關한 考察』, 장봉락의 『新生아프리카研究』 등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주제를 다루는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발전에 기반을 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던 아프리카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등 가시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아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에 추진되던 ‘자원외교’의 영향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자원외교는 이미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국, 유럽, 인도 등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으나, 국내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국내 대학의 아프리카 관련 연구소의 설립, 교육부의 아프리카 연구 지원 프로젝트의 탄생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학계에서도 아프리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과 전문 학술논문집에 실린 연구 논문,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출판물들의 현황을 통해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한건수,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아시아리뷰』 3권 1호, 165쪽.

II. 국내 학위논문 현황3)

1957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국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논문은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논문을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석사논문 686편, 박사학위 논문 48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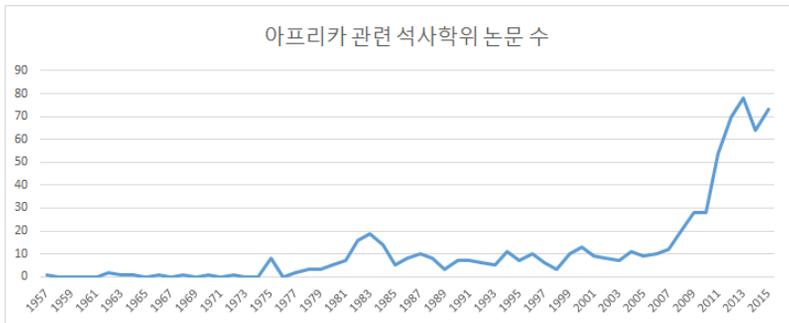


표1) 연도별 아프리카 관련 석사논문 수

| | |
|-------|----|
| 2007년 | 12 |
| 2008년 | 20 |
| 2009년 | 28 |
| 2010년 | 28 |
| 2011년 | 54 |
| 2012년 | 70 |
| 2013년 | 78 |
| 2014년 | 64 |
| 2015년 | 73 |

표2) 2007년 이후 석사논문 수

3) 195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논문, 석사학위 논문 686편, 박사학위 논문 48편을 분석 대상으로 함.

표1)에서 보듯이 국내의 아프리카 관련 석사학위 논문의 수는 1979년까지, 197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편을 넘지 못했다. 본격적인 아프리카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10편 내외의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성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8년에 처음으로 20편을 넘는 석사 논문 수는 2012년부터 매년 70여 편 내외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2015년 현재 국내 아프리카 관련 석사논문 수만 해도 680여 편에 이르는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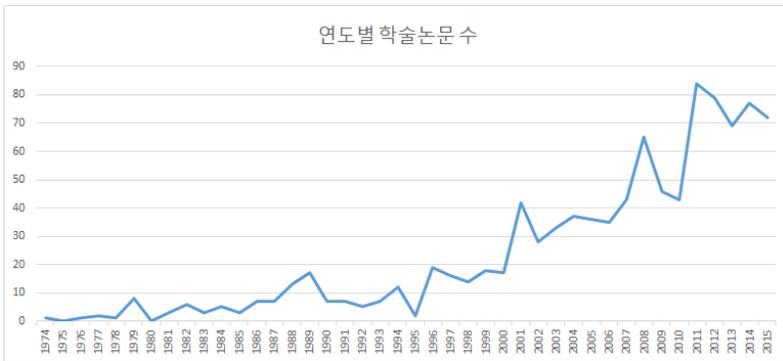


표3) 연도별 학술논문 수

표3)에서 보듯이 학술논문 수 역시 학위 논문의 증가세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지에 발표되는 학술논문이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 성과 교류와 일반 독자들에게 자신의 연구 내용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술논문의 증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전문적 학술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데이터를 보면 국내 아프리카 연구는 한정된 연구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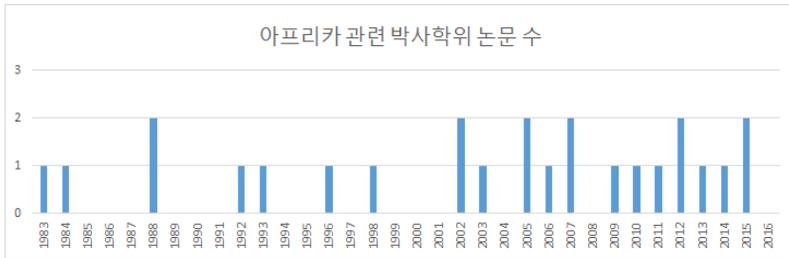


표4) 아프리카 관련 박사학위 논문 수

그러나 폭발적인 증가세의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과 비해 볼 때 박사학위 논문의 생산량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3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박사학위 논문은 표4)에서 보듯이 2000년까지는 몇 해 걸러 한두 편씩 배출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석사논문과 학술논문이 파격적으로 증가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도 박사학위는 매년 2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 국내의 아프리카연구의 일천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석사 수준의 연구나 개론 수준의 개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박사 수준의 심도있는 연구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연구의 활성화가 최근 몇 년 사이의 현상이므로 아직 심도있는 결과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국내의 인문·사회학적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깊이 있는 학위논문이 양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는 개인적, 개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학문 영역별 편중성에 있다. 표5)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산출된 학위논문의 75%가 사회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표6)에 나타나듯이 사회과학 분야의 70% 정도가 경제경영, 정치, 국제학, 국제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학과 국제개발 분야를 유사 분야인 정치와 경제에 편입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국내 아프리카 사회과학 연구의 70%가 정치·경제 분야인 셈이다. 이는 범위를 넓혀 전체 논문 대비로 본다면 전체 논문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국내

의 대 아프리카 인식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그동안 국내의 대 아프리카 시각은 정책적 목적의 정치적 접근 대상 또는 경제적 진출의 대상 일변도의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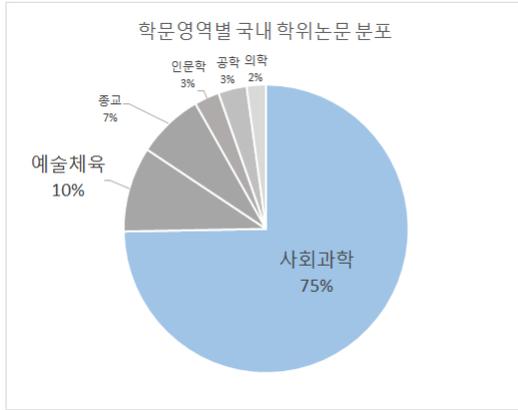


표5) 학문영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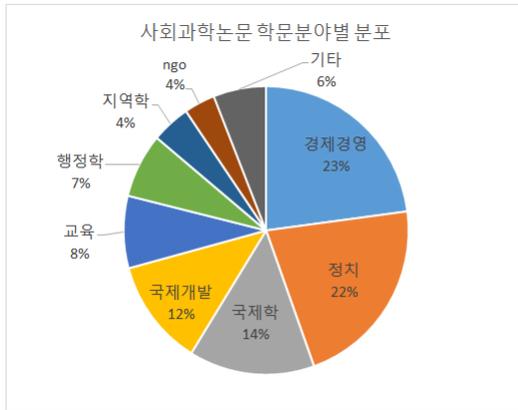


표6) 사회과학 분야 개별학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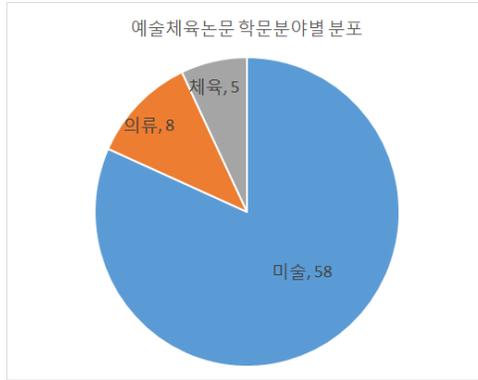


표7) 예술체육 분야 개별학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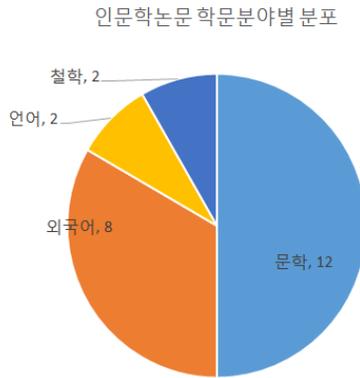


표8) 인문학 분야 개별학문 분포

이러한 학문의 편중성은 예술체육 분야나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체육 분야는 사실상 95%의 논문을 미술계통이 차지하고 있고, 인문학 분야도 문학, 외국어 분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II. 국내 학술논문 현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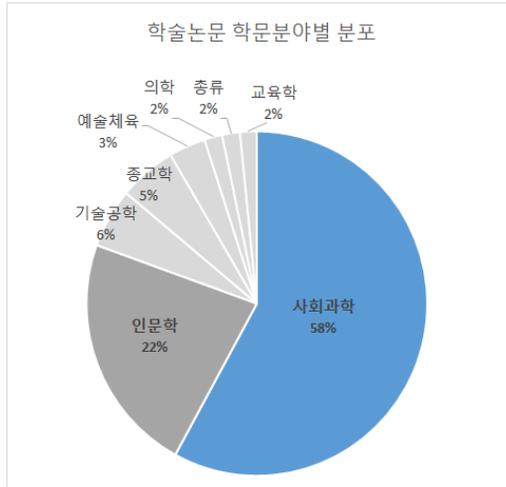


표9) 학술논문 학문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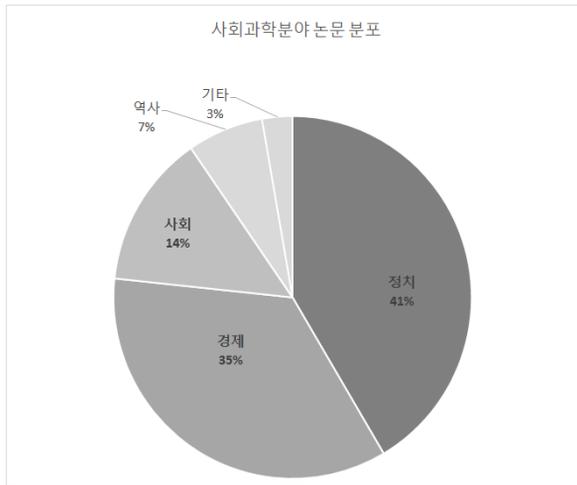


표9) 사회과학 분야 개별학문 분포

4) 197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등재지 이상 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 1,006편을 분석 대상으로 함.

학술논문의 경우 특이한 점은 표9)에서 보듯이 학위논문 분야에서는 3% 정도의 미약한 비율에 지나지 않았던 인문학의 비중이 학술논문에서는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사회과학 분야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인문학 논문의 양산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여전히 정치·경제 부분의 관심이 주된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사회학, 역사학 분야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중심이 여전히 사회과학적 관심, 그중에서도 정치·경제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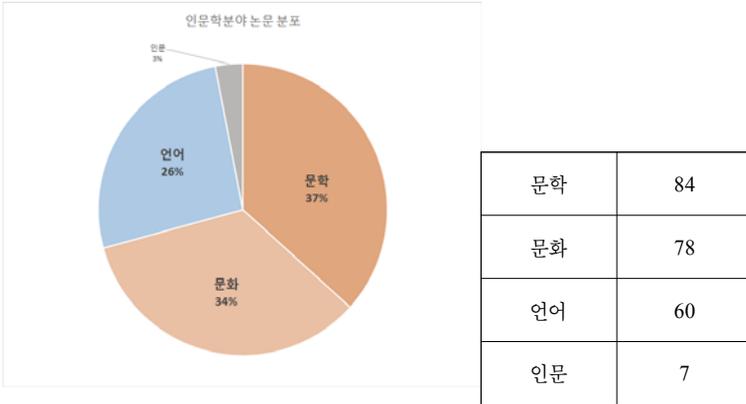


표10) 인문학 분야 개별학문 분포

| | |
|----|----|
| 문학 | 84 |
| 문화 | 78 |
| 언어 | 60 |
| 인문 | 7 |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인문학 논문의 증가이다. 학위논문 분야에서 미미하던 인문학 분야의 학술논문 증가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처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학술적인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연구를 시작한 자발적 연구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학문적 전공의 결과로 나오는 연구결과의 비중이 적지는 않다. 그 예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 분야의 논문 수이다. 인문학 중에서도 순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언어학

논문의 경우 한국의국어대학 스와힐리어과 출신의 연구자들의 스와힐리어와 차디어 분석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전공한 언어학 연구자들은 아프리카 현지 언어를 직접 구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아프리카 현지 언어의 소개와 연구에 일조한 바가 크다. 그들의 연구는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로도 일정한 연구의 성과를 축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의 열악한 국내 아프리카 연구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아프리카 현지 언어의 학문적 연구가 2010년 이후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제도적 지원인 정부 프로젝트 수행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문화 분야의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학 논문의 증가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학 비전공자들로 이루어진 문화 분야의 연구자들은 대개 문학을 통해서 아프리카 문제에 접근하거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공용어로 통용되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어문학 전공을 통해 아프리카에 접근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아프리카 비전공자들의 아프리카 연구에의 진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이들은 제도적인 아프리카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자발적인 연구진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문헌 연구나 간접자료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문화를 접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의 연구가 아니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방대한 아프리카 연구 자료를 접할 수 있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현지 연구에 있어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과 국가와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넓고 큰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주로 아프리카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치 경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는 아직까지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연구 성과도 아직은 서로가 자신들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상호 교류를 통한 미래 지향적 아젠다의 제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자각을 통해 아프리카 연구의 종합이라는 공통의 프레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IV. 국내의 아프리카 인식

국내 연구진들의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에 비해, 그 결과물의 한국사회에의 적용 또는 인식의 변화는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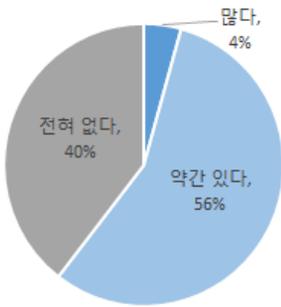


표11)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정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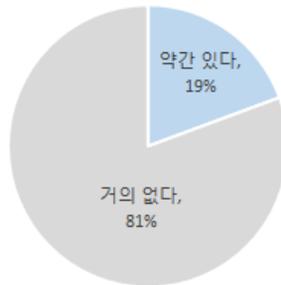


표12)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 정도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에서 2016년 5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⁵⁾에서 나온 표11)과 표12)의 결과는 현재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척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약간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표12)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경희대 아프리카연구센터에서 2016년 5월 서울과 수도권 5개 대학 대학생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프리카 관련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이다.



표13) 아프리카 관련 연상단어 빈도

이러한 결과는 표13)의 아프리카 관련 연상단어에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아프리카에 대하여 사막, 초원, 야생동물 등 일반적인 자연환경과 관련된 피상적인 이미지와 기아, 가난, 내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 대신에 매스 미디어에서 비취 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습득한 결과로 보인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각 국가와 지역이 가진 정치·경제적 사안들과 괄목할 만한 성장잠재력⁶⁾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아프리카와 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국가전략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디하겠다.

6)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나라 중 10곳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이다.” (Lucas Kawa, “The 20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Business Insider*, 2012년 10월 24일)

아프리카의 미래 발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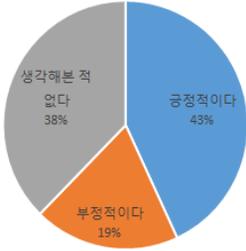


표14) 아프리카 미래발전 인식

아프리카 지역 취업 또는 취업 후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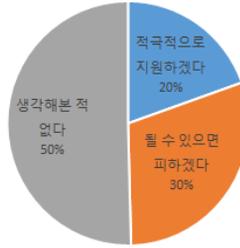


표15) 아프리카 지역 취업 인식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표14)에서 보듯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의 43%에 달할 정도로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15)에서 보듯이 개인의 거취 문제에 이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생들은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회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 또는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서의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직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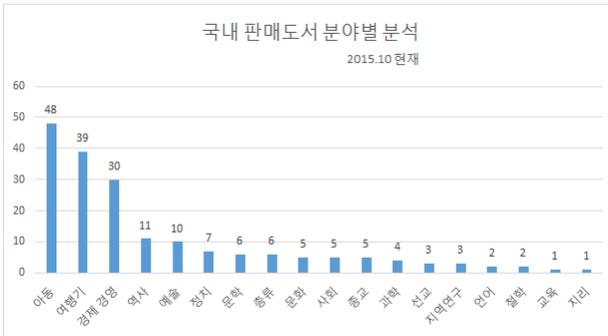


표16) 국내 판매도서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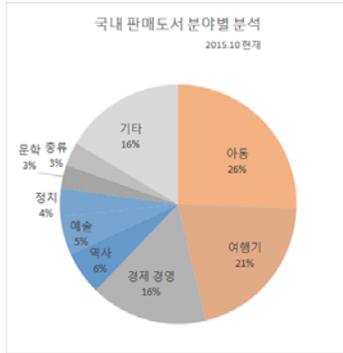


표17) 국내 판매도서 분야별 분포

국내의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매도서 현황이다. 2015년 10월 현재 교보문고, 알라딘 판매서적 총 188종을 대상으로 보면, 아동용 도서와 여행기(여행안내서 포함)가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아프리카가 국내에서는 교양과 호기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과제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관련 전문 학술 논문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역사를 고려한다면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 학술연구의 양적 증가가 주제의 다양성과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연구로 이어졌는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가장 큰 고민이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은 우선 연구 분야의 편중성이라 하겠다. 아프리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과학 연구 중 정치 경제 분야에의 집중은 그동안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인문학 분야의 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그 양적 증가에만 만족할 수

없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다. 인문학 연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과 언어 연구의 경우, 그 연구의 성격이 타 분야와의 연결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문학의 경우 아프리카 현지 작가들에 대한 연구들 보다는 아프리카에 대한 개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작품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언어학적 연구 역시 특정 몇몇 언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이해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문화 관련 연구 역시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주제들 역시 연구자 개인적인 관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이해의 핵심이 될 문화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연구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또 다른 과제는 분야별 연구들의 종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큰 축은 KOTRA나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같은 정부 기관, 한국외국어대학 아프리카연구소나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같은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소,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기관의 연구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국가 개관과 정치 경제적 정보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대학연구소의 경우는 인문, 사회, 언어, 문화 등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 연구자들의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성격상 일정한 분류로 묶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프리카 연구 또는 정보의 수집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연구의 대부분이 각각의 학문적 영역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내 연구자들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 박경덕, 『기회의 땅 아프리카가 부른다: 지구촌 마지막 투자 유망지 아프리카를 말한다』, 원앤원북스, 2012.
- 박상식, 「중공의 대아프리카 정책」, 『중소연구』 6권 3호, 1982.
- 박원탁,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연구』 제8·9호, 1996.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3. 6: 아프리카 중동』, 진한엠앤비, 2014.
- 윤상욱,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 우리가 알고 있던 만들어진 아프리카를 넘어서』, 시공사, 2012.
- 이한규, 「탈냉전이후 아프리카-유럽 관계의 변화」,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003.
- 장백일, 『아프리카 현대사』, 태창문화사, 1979.
- 정병도, 『마지막 시장 : 중남미, 아프리카』, 필디앤씨, 2016.
- 정혜진,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 한계와 요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조원빈,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제2권, 2012.
- 하워드 프렌치,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 박홍경 역, 지식의날개, 2015.
- 한건수,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아시아리뷰』 제3권, 2013.
- Bernard Lugan, *Histoire de l'Afrique des origines à nos jours*, Ellipses Marketing, 2009.
- Bernard Nantet, *Dictionnaire de l'Afrique*, Larousse, 2008.

❖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Task of African Studies in Korea

Hong, Myung-Hee

Since the 2000's, interest toward Africa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Korea's interest in Africa began in the second half of the 1960's. However, this interest in the 1960's was motiva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necessity at the time rather than the needs of indigenous groups in Africa. Korea had to oppose North Korea's diplomatic expansion in Africa to gain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This interest in Africa motivated by diplomatic needs vanished quick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Authentic Korean interest in Africa began to emerge in the 2000's. Korea's rising international status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led to a natural interest in Africa, which was the last frontier on earth. As a result, African studies in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2010.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ses, articles and books was remarkable from 2010-2016, in comparison with 1957-2010.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quantity of thesis, articles, and books, the problem with Korea's African studies is above all, its preponderance. Over 75% of thesis and 70% of articles are concentrated in the domain of politics and economic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Korea's interest in Africa is based on short term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indicating that Korea's African studies did not deviate from the rudimentary phase in its quantity and quality.

Another problem with Korea's African studies is the lack of integration of different types of research. African studies in Korea has three components, government funded research centers, university laboratories and individual researchers.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centers focus on the overview of African nations and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University laboratories mainly perform research on the theoretical aspects of politics, economics, human sciences and culture in Africa. Individual researchers are concerned with various categories. However, these three groups have failed to achieve a synergic effect on African studies in Korea and most of the research on Africa does not extend beyond each academic area. To overcome this problem, first of all, a live exchange

may be necessary between domestic researchers.

Key Words

Africa, African studies, State of African Studies

논문접수일: 201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06일